

“광주 ‘국가AI컴퓨팅센터’ 확충·전남 국립의대 설립”

이재명 ‘호남권 경제부흥’ 공약 발표

“AI·미래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 상생 발전 지원”
광주 간담회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26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24일 “새로운 호남시대를 열겠다”면서 ‘호남권 경제부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 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광주는 온몸으로 진실을 지켰고 산업화의 파고에도 농생명 뿌리를 지켜냈다.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다”며 “그러나 불균형발전의 피해로 호남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이순신 장군이 남긴 ‘가만히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다(竊想湖南國家之保障·절상호남국가지보장)’라는 말을 인용하며 “호남의 슬픔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야 한다.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우선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호남이 산업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를 방문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씨와 포옹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고,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 도약을 추진

하는 한편 여수의 주력 산업은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어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나주는 한국 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 일대의 태양광·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 도시로 고도화하고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벨트를 만드는 등 세계적 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넓게 잇겠다”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축 추진, 광주·대구 달빛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내란사태를 이겨내고 다시 번영의 공동체로 가야 해서 국민의힘이 수없이 약속했던 것처럼 광주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등을 위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동시에 모든 조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7체제(1987년 헌법 체제)가 너무 낡았고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도 강화해야 한다. 권력구조도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추천제 등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는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국민 투표 시기에 대해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좀 늦으면 그 다음 (2028년) 총선 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너무 서두르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5·18 유족인 김송희 이재명 캠프 후원회장, 한림대 미디어스쿨에 재학 중인 박선우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 작가에 이름을 올린 강유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선욱·정성현 기자

강 시장·김 지사 “민주 대선 후보 지역공약 환영”

AI·국립의대 신설 등 약속 “광주전남 발전·비전 담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인공지능(AI) 도시 육성·국립 의대 신설’ 등의 광주·전남 공약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대선후보들이 광주의 인공지능을 주목하며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가 되

어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김경수 후보는 ‘광주 AI 중심도시 육성’, 김동연 후보는 ‘광주에 AI 도시 조성’,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을 약속했다”며 “기분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호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호남 부흥 공약과 비전이 담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호남을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

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 의대 신설과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SOC 사업이 대거 반영된 점 또한 높이 평가하며, 전남을 포함한 호남 경제부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 발전전략과 잘 연계해 새로운 호남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을 앞당기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정상이 기자

신안에 ‘청년 바다마을’ 조성한다

해수부 사업 선정…100억 투자 청년귀어인 주거 등 정착 지원

전라남도해수수산부의 ‘2025년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 신규 공모에 신안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어촌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이번 사업에서 신안군은 우수한 입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 청년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바다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바다마을’이 조성될 신안 임자면은 하우리항과 진리항을 중심으로 어촌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청년 귀어인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귀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과 규모를 분석, 타운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문화 공간 등 주민 공동시설은 청년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활용하도록 공간을 조성해 커뮤니티 모델로 운영, 청년이 빠르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오지현 기자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kps.co.kr

Global No.1